

LG화학, 상생협약 이행실적 우수

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 ... LG하우시스·LG생활건강도 포함

LG화학이 상생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8개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 LG화학과 롯데제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7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3월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협력기업에 2차전지 부품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과 함께 화학기업으로는 LG하우시스가 우수등급을, LG생활건강이 양호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LG엔시스에 대해서도 우수등급을 부여했고,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햄,에 대해서는 양호등급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양호등급에 미달한 8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협약을 맺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양호등급을 받지 못한 곳도 납품단가 조정과 현금성 결제 등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18개 대기업을 협력기업 지원효과는 약 2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로 127개 대기업을 5만2000개 협력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6>